

AI 감염경로 오락가락...속대발 된 전남 오리농가 발만 동동

농축산검역본부 '오염된 왕겨' 의견 냈다가 "공식 입장 아니다" 말바꿔
방역당국이 혼신 불려...농가들 "역학조사·방역작업 하기는 하나" 분통

국내 최대 오리사육지 전남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뚫려 속대발이 되고 있지만 가축 방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가 유입 경로를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첫 확진 농장 발생 이후 10여 일이 지나서야 "농장에 왕겨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가 "공식 답변이 아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되레 혼선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이자 가축 방역 중앙행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전남지역 오리농장을 휩쓸고 있는 AI 농가 유입 경로에 대해 "왕겨 살포 과정에서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이날 내놨다.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경로에 관한 입장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방역 화상 회의에서 밝혔다고 전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본부장이 역학조사관을 대동하고 AI 발생 농장 6곳을 직접 살핀 뒤 "왕겨가 문제가 됐을 확률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검역본부장과 역학조사관들이 오리 농가 왕겨 창고, 별도 공간에 마련된 왕겨 보관 창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왕겨로 특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에 걸린 야생조류가 왕겨 보관창고에 들어갔거나 왕겨에 철새 분변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관련 사진 등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광주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전남도당위원장) 의원을 통해 '전남지역 농가 AI 유입 경로'에 대해 질의하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 '왕겨 살포 과정에서 농가로 유입된 게 유력하다'는 추정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 공식 답변이 아니다. 조사관 개인 의견으로 보달라"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초 감염원이 (AI에 걸린) 야생 조류에 의한 것은 맞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전남도도 마찬가지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축 방역 관련 인력, 권한, 경험 등에서 월등해 전남도로서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축 방역기관이 AI 농가 유입에 관해 오락가락하면서 부담은 농가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입 경로가 특정되면 그에 맞게 적절한 방역 활동을 하고 발생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지만, 조식 특성이 안 될 경우 방역 범위를 넓히고 농가의 행동 제약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4일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7일 나주시 세지면 육용오리 농장, 9일 나주시 동강면 육용오리 농장, 10일 장성군 삼계면 종오리 농장, 11일 영암군 덕진면 육용오리 농장 2곳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랐다. 이 기간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160만 수를 웃돈다.

전남에선 오리 사육 농가 236곳에서 402만여 수를 사육 중이다. 전국 900여만 수 대비 44.7%다. 단 3농가를 제외한 200농가(367만 수)가 다수, 제이디팜, 사조원 등 계열사와 계약을 맺고 사육 중이다. 사군별로는 나주시 61개 농가 105만 수, 영암군 38개 농가 71만 수, 장흥군 17개 농가 26만 수 등이다. 닭은 401농가에서 2571만 수를 사육한다. 전국 1억9400만 수 대비 11%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꼼꼼·과감...이낙연·김태년 '투톱' 조화로운 리더십 돋보였다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권력기관 개혁 3법' 마무리
각종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처리
"정쟁중에도 할 일은 한다" 평가
추, 대선 지지율 반등 동력 마련

더불어민주당의 '투톱'인 이낙연 대표(영광)와 김태년 원내대표(순천)가 지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을 통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입법 과제를 무난하게 통과시키면서 정치적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진두지휘하에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 지었다. 또 논란이 많았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무난하게 처리해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등도 사회·역사적 진전을 이루는 바탕을 조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염병 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쟁 속에서도 '할 일은 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성과를 낸 배경에는 이 대표 특유의 '꼼꼼함'과 김 원내대표의 '과감함'이 조화를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야당에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면서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표적이 이를 반영한다. 필리버스터 종료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174석의 민주당은 무소속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 의원들을 설득, 180석의 찬성표를 얻어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와 함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친여 성향 군소정당 의원들의 투표 여부를 마지막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도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김 원내대표와 전체적인 상황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법 전선에서의 결정적 한 수는 야당과의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로 꼽히고 있다. 예산안과 법안을 따로 분리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주당의 움직임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됐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가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문제인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대선 유력 주자로서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만 어느정도 잡아간다면 대선 가도를 열어가 수 있는 동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6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당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 입법을 이뤄냈다. 입법의 분량도 기록적이지만 역사적 의의도 크다"며 "이 대표는 코로나 19 정국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생 입법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개혁·민생입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정치적 무게감을 더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정기국회는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정치력이 발휘되는 무대"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친화력과 과감성 등 정치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 최전선 의료진 헌신 고맙습니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8)나이팅게일

올 해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가장 수고해온 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수많은 의료진일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육체적 정신적 탈진과 바이러스 감염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특히 올해는 '간호사의 상징'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1820-1910)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세계 간호사의 해'이기도 해서 간

호사를 대하는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영국의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난 17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던 나이팅게일의 사랑이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면서 더욱 빛났듯이,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고도 더욱 값진 시점이다.

영국의 화가 제리 배럿(1824-1906)의 '자비의 임무:스쿠터리의 야전병원에서 부상병을 맞이하는 나이팅게일'(1858년 작)은 크림전쟁이 한창인 때 스쿠터리야전병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다. 쓰러져 누운 부상병 주위로 의료진들이 모여 있고 그 뒤로 부상병들이 들것에 실리거나 부축을 받으며 곁을 걸어가고 있다.

그림 중앙에 검소한 옷차림과 흰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나이팅게일을 중심으로 왼쪽에 군의관과 수녀원장이 서있다. 크림전쟁을 스케치하기 위해 크림리아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



리 배럿 작 '자비의 임무:나이팅게일'

져 있는 제리 배럿은 직접 나이팅게일을 본 적이 있는 화가답게 차분하면서도 밝게 빛나는 나이팅게일의 분위기를 잘 포착해내었다.

현대간호학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통계학자, 사회개혁자이기도 했던 나이팅게일은 야전병원에서 청결과 위생을 개선해 사망률을 42%에서 2%로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의료진의 진심어린 헌신이 질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값진 노고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통계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곡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께 드리는 연말선물

“사진엽서집 나눔 이벤트”

올해 코로나19로 곡성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곡성 사진엽서집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소진시까지
- 배송: 무료배송
- 발송일: 12월말 일괄 배송
- 참여 방법: 곡성군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신청 접수중!
http://blog.naver.com/gokseong_love
- 문의전화: 061) 360 - 8225 곡성군 스마트홍보팀

☆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해 주세요 (패키지 당 10장)



풍경편
곡성 풍경사진
10장 묶음



장미편
여쁜 장미사진
10장 묶음